

# 광주·전남 2만4000명 건보료 새로 낸다

###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연소득 3400만원서 2000만원으로 강화 건보, 지역가입자로 전환...1년차 80% 등 4년 간 보험료 경감

# 광주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 A(여·72)씨는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로 월 15만원의 부담을 내야 하는 신세가 됐다. A씨는 매월 200만원의 공무원연금과 사업 소득을 합쳐 연 2832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최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A씨는 한시적 경감조치로 올해 보험료 80%를 경감받아 월 3만원만 내면 돼 그나마 숨을 돌렸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2만 4000여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를 시행했다. 새 부과체계에서는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종합소득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재산 요건은 피부양자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기준을 유지했다. 이 조치로 광주 1만 1320명, 전남 1만 2693명 등 광주·전남 2만 4013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서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다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최소 1만 9500원을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전 국민의 33.9%인 1796만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광주는 38만 6634명(전국 7.4%), 전남은 57만 6154명(10.97%)이 피부양자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한 피부양자를 제외해 왔다. 지난 2020년에는 광주 8753명, 전남 1만 2457명이 제외됐으며, 2021년에는 광주 7709명, 전남 1만 418명이 제외됐다. 전국 대비 광주·전남 제외율은 2020년 4.74%, 2021년 4.41% 수준이다. 다만 올해는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제외율도 9.38%로 이전보다 두배 이상 뛰었다.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향후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는다.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도 기존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인상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했던 소득보험료도 모두 6.99%로 동일화했다. 예컨대 연 소득 1500만원인 세대의 경우 기존 등급제로는 한달에 13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나, 6.99%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8만 7000원 수준으로 인하됐으며, 반대로 소득이 많은 세대는 그만큼 소득보험료가 증가했다. 이밖에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진 지역가입자는 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 보험료 또한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건보료를 공제받았으나, 지난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중등교사 45명 채용 공·사립 동시 지원 가능

광주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에 5일 공고했다. 선발 분야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다. 국어, 물리, 역사 등 14과목에서 총 45명(일반 39명, 장애 6명)을 선발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치뤄진다. 1차 시험과목은 교육학과 전공 2과목이다. 교육학은 논술형이며 전공과목은 단답형과 서술형으로 출제된다. 2차 시험에서는 교직적성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응시 분야별로 실기시험과 수업실연을 한다. 1차 시험은 11월 26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중순에 실시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내년 2월 7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고시팀(062-380-4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휴공 줄게 맑은 물 다오

5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월산마을 회관 앞에서 열린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수질개선 체험형 환경교육'에 참가한 삼각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질정화와 악취제거를 위해 월산천에 EM용액과 황토를 배합해 만든 휴공을 던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 전남대병원 신입 의사 절반 '1년 내 퇴사'

### 인력 이탈에 외래 진료 대기일수도 늘어...공공의료 공백 우려

최근 3년 동안 전남대병원에 신규 임용된 의사 가운데 1년 이내에 절반이상이 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의원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대병원에서 33명의 의사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의 비율이 50%를 넘은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입사 1년 이내 의사의 퇴직 비율은 2020년 57.1%, 2021년 54.8%였다. 2022년 9월 기준 퇴직 비율은 63.6%로 전국 평균 비율(33.3%)보다 약 2배 높았다. 의료인력 이탈과 함께 전남대병원 외래 진료 대기일수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국립대병원 9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의 외래 진료 대기 일수는 42.8일(2018년)→44.3일(2019년)→47.5일(2020년)→40.3일(2021년)→44.8일(2022년)으로 40일대를 유지하고 있다. 빛고를 전남대병원은 2018년 37.1일 이었던 대기일수가 2022년 40.8일로 늘었다. 다만 화순 전남대병원은 2018년 44.9일 이었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올해 절반수준인 25.8일로 줄었다. 서동용 의원은 "의료인력의 높은 퇴사율은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의료진까지 퇴사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서 "심각한 공공의료의 공백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6·25 때 장흥 민간인 124명, 지방 좌익에 희생"

###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론...희생자 다수는 어린이 포함 일가족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5일 한국전쟁 발발 후 장흥군 대덕면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해 "민간인 124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4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월-10월 초 장흥군 대덕읍에서 124명이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경찰과 공무원 및 가족,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로 부유하다는 이유 등으로 살해됐다.

일가족이 함께 처형을 당한 경우가 대다수로 확인됐다. 전체 사건 120건(희생자 수 124명) 중 96%(116건, 120명)가 가족 희생 사건이고, 개별 사건은 4건뿐이었다. 희생자 중 15세 이하 아동이 30%이고, 50-60대 희생자도 적지 않았다. 여성피해자가 37%에 이르렀고 희생자의 55%가 농업과 가사에 종사했다. 가해 주체는 지방 좌익이다. 인민군 점령기였던 1950년 9월 초순에 발생한 사건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흥이 수복되기 직전 대덕읍 실정 및 희생자들에게 대해 잘 알고 있는 지방 좌익에 의해 그해 10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장애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율 '전국 최고'

### 차 등록수 대비 2.07% 달해

지난해 자동차 등록수에 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비율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총 1만 4674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6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2만건, 인천 14만건, 부산 12만건

순이었다. 광주는 약 9만건, 전남은 6만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수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은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순으로 광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년간 광주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9억원이고, 전남에서는 57억원이 부과됐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은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약초(새싹삼) 농장 답사와 함께하는

# 약초가 일일무료특강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자 1급~3급까지 자격취득 안내

### 꼭 읽어보십시오.

**1,000만 만성질환 당뇨**(60대이상 성인 3명 중 1명 당뇨), 고혈압, 암, 치매, 중풍, 천식 등 기타 각종 질환이 난무하는 시대에 90세이상 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부터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은 올바른 음식섭취와 약초를 권했지요. 또한, **면역력 증강 음식 섭취**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현미섭취**"와 **약초(야채 및 한방차)** 섭취로 음식문화를 바꾸어 보십시오.

아울러 **약초자격(1급~3급) 취득**으로 "부(富)도" 이어가십시오. 그 방편으로 ①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자 자격 1급~3급까지 자격 취득 안내와 ② 약초(새싹삼) 농장답사를 함께 하며, ③ 직접 바로 도정한 현미쌀 무료 식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날 하루 뜻깊은 날을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출발 일정 >**

지역명	광 주
날짜	10월 11일(화요일)
장소	광주역 광장 앞(광주북구)

  

지역명	순 천
날짜	10월 12일(수요일)
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영주차장 앞

※ 출발시간 : 각 지역 마다 **오전 7시 00분** 출발

※ 출발장소 : 우측 일정 지역별 장소 참조 (관광버스 대기) 버스 앞에 "**약초농장답사**" 라고 써 있습니다.

※ 사전예약 : **010-4846-7397 / 010-4115-7397**

※ 단체 예약도 환영합니다.

※ 주 최 : 산야초, 약용식물 관리자자격개발연구원, 농업법인 산들마을

※ 우천시에도 정상 진행합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농장알리기 일환으로 **가정필수품을 선물로 무료 증정**합니다.